



내기가 싫어지고요,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꺼내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쪽으로 도피하게 되죠. 아프니까 당연히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사머니즘쪽으로 가기가 참 쉬워요. 그러므로 진지하게 내적 치유를 해가면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좋다고 봐요. 가계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주라는 표현은 너무 사머니즘적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 상처에 묶여 상처가 대물림 될 수 있지만, 가계의 저주라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 가계의 상처 혹은 영적인 문제 정도의 표현을 사용해 쓸데없는 오해와 혼돈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적 상처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치유하려는 데 더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겠군요.

내적인 상처가 분명히 있고 자기쪽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고 있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문제는 슬쩍 지나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계에 흐르는 어떤 악한 영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치유는 제대로 안한다는 겁니다. 치유에 대해서는 1퍼센트 혹은 10퍼센트 정도만의 관심만을 갖고 대강 지나가 버리고 실제로는 얼른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유를 할 수 없어요. 치유가 안된 상태로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근본적으로 그 자신의 내면과 인격 안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죠. 결국 해결이 안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적 치유에 80 내지 90퍼센트 치중을 해야 한다고 말하

고 싶어요. 치유시역을 하다보면 당연히 영적인 문제도 같이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처가 치유되거든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주장하는 분들은 영의 문제 해결을 치유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런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치유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불충분한 혹은 치우친 이해 때문이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혼돈은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을 축사해서 쫓아내는 것과 우리 인격의 문제, 인격 안에 생긴 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가계를 통해 흐르는 상처나 문제는 주로 정신의 문제이거나 몸 차체에서 생기는 문제와는 달라요. 정신 문제는 주로 인격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고 아프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인격적으로 다루어야 상대가 돼요. 인격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인격적인 민감성을 통해 풀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실 때 인격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완력으로 억지로 대하면 인격은 말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래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 깊은 단계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해요. 복음이란 은혜이고 인격은 그 은혜를 통해서만 열려지고 치유되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치유